

[일반 논문]

윤석중 문학에 나타난 생태학적 세계인식

Ecological Recognition of the World Reflected

in Seok-joong Yoon's Literature

—『그 얼마나 고마우냐』와 『반갑구나 반가워』를 중심으로

노경수

(한서대 겸임교수)

차례

- | | |
|--|-------------------------|
| 1. 들어가기 | 1) 인간과 자연의 동일성 인식 |
| 2. 『그 얼마나 고마우냐』와 『반갑구나 반가워』
에 나타난 생태학적 세계인식 | 2) 사물 신체를 통한 탈 자아중심적 인식 |
| | 3. 나가며 |

1. 들어가기

우리는 흔히 아동문학을 이야기할 때 아동을 위한 문학 혹은 동심의 문학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동심(童心)이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한 마디로 대답하기를 주저한다. 그것은 동심의 특성이 한 마디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동심은 어린이다운 것이라는 단순함에 기인할 것이다.

동요의 대가인 윤석중 문학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도 바로 동심이다. 그의 방대한 작품에 나타나는 세계인식 방법은 동심지향을 축으로 다양한 양상을 띤다. 그 중에서 사물을 소재로 시 창작을 할 때 윤석중은 사물을 화자와 동일한 위치에 놓고 가치를 부여한다.

현대인은 누구나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부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경쟁을 한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능력을 키우고 기교를 부리며 때로는 타인을 속이기도 한다. 부귀와 권력을 쟁취하면 그것이 곧바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순이 넘어 발간한 『그 얼마나 고마우냐』

와 『반갑구나 반가워』에 나타난 윤석중의 세계인식 방법은 부귀와 권력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윤석중의 『그 얼마나 고마우냐』와 『반갑구나 반가워』에 나타나는 세계인식 방법은 우리에게 부귀와 권력을 갖기 위한 교환가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을 비롯한 타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나아가 한정된 재화로 인하여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의식하게 하고 경쟁사회, 부조리한 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선한 인간은 물론 외면당하는 자연과 사물에까지 가치를 부여한다. 결국 그가 추구하는 동심지향의 문학은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본고는 윤석중의 방대한 작품세계에서 팔순이 넘어 출간한 『그 얼마나 고마우냐』와 『반갑구나 반가워』에 나타나는 생태학적 세계인식을 중심으로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그의 문학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반갑구나 반가워』에 나타난 생태학적 세계인식

윤석중의 방대한 작품세계에서 생태학적 세계인식방법에 따른 작품세계는 80년 가까이 문학을 해온 그의 문학세계 후반기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만 83세에 출간한 『그 얼마나 고마우냐』(1994)와 만 84세에 출간한 『반갑구나 반가워』(1995)에 집약되어 있다.

『그 얼마나 고마우냐』에 나타나는 고마움의 대상은 150가지다. 이 대상들은 동물, 식물을 비롯한 인간의 신체부위, 자연, 문명이 만든 물질, 자연현상, 책, 위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이들은 주로 인간에게 물질보다는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서 사용가치 개념으로써 고마운 것들이다. 또한 이들은 물질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우성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또한 『반갑구나 반가워』에 나타나는 반가운 대상 100가지 역시 현대인들에게 반갑게 인식되지 않는 것들로서 사용가치 개념으로 바라본 대상들이다. 즉 『그 얼마나 고마우냐』와 『반갑구나 반가워』에 나타나는 윤석중이 발견한 고마

움, 반가움의 대상들은 물질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중심적 우성가치¹⁾로부터 밀려난 것들로써 부차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부차가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현대사회의 삶을 유익하게도 편리하게도 하지 못한다.

부차가치의 중요한 작용은 ‘동기조정’이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듯이 사회생활에서는 세력관계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개인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얻을 수 없는 사태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의 불균형을 누그러뜨리고 동기 부여 에너지 저하를 막는 ‘동기조정’메커니즘이 필요하고²⁾ 이를 문학이 담당하고 있다.

윤석중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억압적 현실을 살아냈고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산업화와 정보화, 첨단 글로벌 시대를 경험하였다. 그러한 시인이 삶을 정리하면서 발간한 시집 『그 얼마나 고마우냐』와 『반갑구나 반가워』에서 제시하는 는 세계인식 방법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한 세기를 살아온 윤석중의 이러한 세계인식 방법은 물질을 위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나아가 인간마저 소외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과 자연의 동일성 인식

윤석중의 작품에 나타난 고마움의 발견은 우선 아침 일찍 피는 나팔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봄에 부는 버들피리, 저녁에 피는 분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식물들은 하늘이 길러준 것으로 물질이 지배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가치 있게 인식되지 않는 것들이다.

윤석중은 자연과 인간을 단절된 세계로 인식하면서 자아의 동일성의 세계를

1) 이 표현은 가와하라 카즈에의 『어린이관의 근대』에서 인용하였다. : 가와하라 카즈에, 양미화 역, 『어린이관의 근대』, 소명출판, 2007, p.195 참조.

2) 위의 책, p.195.

형상화함으로써 삶의 ‘공동성’과 ‘공존성’을 회복하려는 세계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세계 인식은 내향성으로 나타나며 이 내향적 세계관을 통하여 현실 속에서의 자아의 동일성을 지키려 하고 있다.³⁾ 그의 이러한 인식은 내향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연과 문명에 “그 얼마나 고마우냐” 하는 윤리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불러온다.

아침일찍 피어서/ 우리들을 반기는/
나팔꽃은 나팔꽃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입에 물고 불며는/ 노래되어 나오는/
버들피리 버들피리/ 그 얼마나 고마우냐.//
저녁 밥 지을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꽃은 분꽃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⁴⁾

흙 속에 파묻혀서/ 나무 크게 해 주는/
나무뿌리 나무뿌리/ 그 얼마나 고마우냐.//
무더운 여름철에/ 나그네가 쉬어가는/
나무그늘 나무그늘/ 그 얼마나 고마우냐.⁵⁾

위의 시에 나타나는 고마움의 대상인 나팔꽃과 버들피리, 분꽃 그리고 나무의 뿌리와 그늘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맙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삶에 의미를 지니지 않았던 것들이다. 시인은 그러한 것들에 고맙다고 노래함으로써 독자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간절한 언어와 반복되는 리듬감은 독자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의 전환으로 유도한다. 150가지의 것들은 전체가 한 편의 노래라고 해도 될 만큼 가볍고 경쾌하다. 그리고 현대 사회 경쟁에 쫓기는 독자에게 꽃밭이나 웅달샘 시원한 나무그늘 같은 쉼터를 제공한다. 그러한 것들이 고마운 존재라면 비록 경쟁에서 패

3) 김수복, 『상정의 숲』, 청동거울, 1999, p.16.

4) 윤석중, 『그 얼마나 고마우냐』, 웅진출판, 1994, p.9.

5) 위의 책, p.19.

배했을지라도 행동하는 인간 존재의 가치는 더 존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와 따 갈까봐/ 가시 옷을 입고 있는/
밤송이는 밤송이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가시에 찢릴까 봐/ 꺾여가지 못하는/
가시나무 가시나무/ 그 얼마나 고마우냐.//
가시가 돌아 있어/ 아무도 손 못대는/
선인장은 선인장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⁶⁾

반갑구나 반가워/ 잘 익은 옥수수알./
누가 미리 따 갈까 봐/ 껍질 쓰고 익었구나.//
반갑구나 반가워/ 송이송이 포도 송이./
나르기 좋으라고/ 주렁주렁 달렸구나.⁷⁾

반갑구나 반가워/ 담 대신 꽃울타리./
나비 손님 찾아와서/ 날개 쉬어 가는구나.//
반갑구나 반가워/ 이름 모를 들꽃들./
이름 모를 애들이/ 구경하다 가는구나.⁸⁾

깨끗이 입고 나서/ 아우에게 물려주는/
언니옷은 언니옷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깨끗이 보고 나서/ 아우에게 물려주는/
언니 책은 언니 책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깨끗이 쓰고 나서/ 아우에게 물려주는/
언니 책상 언니 책상/ 그 얼마나 고마우냐.⁹⁾

6) 위의 책, p.43.

7) 윤석중, 『반갑구나 반가워』, 웅진출판, 1995, p.13.

8) 위의 책, p.17.

9) 위의 책, p.87.

위의 시에 나타난 고마움의 대상은 못생기고 뽀족하여 상처를 주는 밤송이와 가시나무, 선인장이며, 껍질을 쓰고 있는 옥수수과 나르기 좋으라고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 그리고 꽃울타리와 들꽃이다. 언니가 입다가 혹은 언니가 쓰다가 물려주는 헌옷과 헌책 그리고 헌 책상이다. 그것들은 못남과 주눅, 열등감을 상징하는 것들로써 현대인들에게 가치를 주지 못한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들에 “그 얼마나 고마우냐.”라고 반문하여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러한 윤석중의 세계인식방법은 원시성을 가진 태고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누가 따갈까 봐 껍질을 쓰고 익은 옥수수 알, 나르기 좋으라고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 꽃울타리와 들꽃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식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법을 배운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게 다가온다. 현대인들은 오직 새로운 것 교환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인에게 시인은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자연을 구성하는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유도하는 것이다.

위의 시에서 나타나는 밤가시, 껍질 쓴 옥수수, 따가기 좋으라고 열린 포도송이, 꽃울타리와 들꽃에게 “그 얼마나 고마우냐”라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인식은 인간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하다. 삼라만상을 구성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동일한 선상에서 그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시는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세계인식방법은 그 각각의 생명들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생하는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들 시에서 나타나는 반가움의 대상은 고마움의 대상과 별 차이점이 없다. 시인의 세계인식방법은 ‘반가우면 고마운 것이고, 고마우면 반가운 것’이다. 그런데 시인이 반갑거나 고맙다고 하는 대상이 꽃과 나무 같은 식물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것이 노래로 읊을 만큼 반갑고 고마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껍질을 쓰고 익은 옥수수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 인식방법,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에 대한 인식방법은 담 대신 만든 꽃울타리에서 삶의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사물에서 깨달을 수 있는 주체의 지혜에 있고 이러한 지혜는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힘을 가진다. 즉 시인은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삶의 순리와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

인의 세계인식방법은 다양한 삶의 체험과 깊이 있는 성찰을 통했을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시인은 쉬운 우리말에 리듬감을 살린 쉬운 문장 그리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사물들을 통해 깊이 있는 삶에 대하여, 조화로운 삶의 실천적 자세를 세계인식 방법을 통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날마다 일찍 깨어/ 날 밝는 걸 알리는/
수탉은 수탉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날이 밝자 찾아와서/우리 잠을 깨워주는/
아침 까치 아침 까치/ 그 얼마나 고마우냐.//¹⁰⁾

떼를 지어 울어대어/ 비올 것을 알리는/
개구리는 개구리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거미줄을 미리 쳐서/ 날이 갠 걸 알리는/
거미들은 거미들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¹¹⁾

아침마다 알을 낳아/ 사람에게 먹여주는/
암탉은 암탉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 안 자고 집을 보는/
멍멍개는 멍멍개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엄마 대신 젖을 짜서/ 아기에게 먹여주는/
젖소는 젖소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¹²⁾

위의 시에서 고마워하는 것은 수탉과 아침까치, 개구리와 거미, 암탉과 멍멍개 그리고 젖소이다. 수탉은 해를 치며 날이 밝는 걸 알려줘서 고맙고, 아침까치는 울음소리로 아침임을 알려줘서 고마우며, 개구리와 거미는 날이 흐릴 것

10) 윤석중, 『그 얼마나 고마우냐』, 앞의 책, p.41.

11) 위의 책, p.77.

12) 위의 책, p.83.

과 맑을 것을 알려줘서 고맙고 암탉과 젖소는 먹을 것을 줘서 고마우며 멍멍개는 집을 봐줘서 고마운 존재이다.

이 고마운 존재들은 인간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날씨를 알려주며, 먹을 것을 준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시계가 없어도, 기상예보가 없어도 때를 알아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생태학적 인식으로 태고의 인간의 삶의 자세를 형상화하였다. 과학의 발달에 신세지지 않아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시인의 인식은 자연을 구성하는 것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현대 사회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금력이나 권력이 무용(無用)해진다.

이러한 윤석중의 세계인식은 현대 글로벌 경쟁사회에 역행하지만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욕망의 지배에 휘둘리는 인간을, 물질의 지배에 종속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또한 상대적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태고적 인간의 삶을 통하여 현재적 삶을 돌아보게 하고 존재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두 권의 시집에 나타나는 윤석중의 생태학적 인식은 동식물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의 세계인식 방법은 확대되어 자연물로 이어진다. 즉 윤석중의 세계인식 방법은 웅달샘이나 연못물 해와 달 등의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생각하고 고맙다고 하여 독자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유도한다.

아무리 떠먹어도/ 물이 다시 솟아나는/
 웅달샘은 웅달샘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더운 해 가려주고/ 서늘한 비 내려주는/
 구름은 구름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사람 손당지 않게/ 물에 연꽃 피게 하는/
 연못물은 연못물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¹³⁾

반갑구나 반가워/ 냇가의 수양버들./
 흐르는 강물 위에/ 글씨 공부 하는구나.//

13) 위의 책, p.21.

반갑구나 반가워/ 산골짜기 맑은 물./
바위가 막으면은/ 길을 돌아오는구나.¹⁴⁾

위의 시에서 고마운 대상은 웅달샘과 구름, 연못물이고, 수양버들과 산골짜기 맑은 물이다. 이러한 자연물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에서 누대로 생명을 실어 나르며 살아가면서도 그 근원의 고마움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부로 대한다. 그것은 하늘이 만든 무한정한 물질보다 인간이 만든 유한정한 물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눈앞의 것을 탐하기 위하여 환경을 오염시켰고, 지구를 파괴했으며 그 결과를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다.

시인은 바위가 막으면 길을 돌아 흐르는 산골짜기 맑은 물에게 ‘그 얼마나 고마우냐’고 한다. 맑은 물은 생명수의 상징이다. 물은 산골짜기를 흐르면서 강으로 바다로 간다. 그 순환적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을 키워낸다. 그것을 포착한 시인은 생태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인의 이러한 자세는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다.

반갑구나 반가워/ 얼음 녹아 흐르는 내./
흐르는 냇물 타고/ 겨울 빨리 가는구나.//
반갑구나 반가워/ 푸른 산과 푸른 강./
쳐다보면 푸른 숲/ 굽어보면 푸른 물.¹⁵⁾

어둠에서 태어나/ 차차 밝게 자라는/
초승달은 초승달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음력으로 열닷새를/ 둥근달로 알려주는/
보름달은 보름달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낮엔 해가 밤엔 달이/ 번갈아서 밝혀주는/

14) 위의 책, p.25.

15) 윤석중, 『반갑구나 반가워』, 앞의 책, p.27

해와 달은 해와 달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¹⁶⁾

줄고 있는 산과 들을/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소나기는 소나기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비가 뚝 그친 뒤에/ 색동 다리 놓아주는/

무지개는 무지개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처마의 빗물이/ 한데 모여 흐르는/

흙통은 흙통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¹⁷⁾

시인의 세계인식 방법은 산과 들을 깨우는 소나기와 무지개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물질을 탐하기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현대의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에는 반가움 100가지로 새 동요집 『반갑구나 반가워』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반가운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며 자라면서 반가운 일이 뒤를 이어 자꾸 생기기를 바랍니다.”¹⁸⁾

위와 같은 시인의 인식은 역지사지의 삶의 철학으로 안내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는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에서도 마주보기 떴찍어 뒤돌아서서 같은 방향을 본다. 상대와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럴 때 누군가 “반갑습니다”인사를 건네면 어색한 분위기는 누그러진다.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하기를 어려워한다. 윤석중은 우리의 이러한 정서를 『반갑구나 반가워』를 통해 부드럽게 유도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고마움과 반가움을 심은 자리에는 고마움과 반가움이 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16) 윤석중, 『그 얼마나 고마우냐』, 앞의 책, p.45.

17) 위의 책, p.91.

18) 윤석중, 『반갑구나 반가워』, 앞의 책, 머리말 참조.

2) 사물, 신체를 통한 탈 자아중심적 인식

동심을 지향하는 윤석중의 세계인식 방법은 사용가치 개념으로서의 인식방법이다. 이러한 인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물과 무생물 자연은 물론 사람의 신체까지로 이어진다. 인간의 신체 각 부분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식방법은 그동안 팽배했던 다른 이와 다른 것을 지배하려는 자아 중심적 인식을 지양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로 안내한다.

이 세상 물건들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두 눈은 두 눈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밤이면 잠자라고/ 두 눈을 달아주는/
 눈꺼풀은 눈꺼풀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언제나 열려 있어/ 모든 소리 다 들리는/
 두 귀는 두 귀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¹⁹⁾

두 손을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 있는/
 손바닥은 손바닥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무거운 물건들을/ 번쩍 들어 옮기는/
 두 팔은 두 팔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걸어서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두 다리는 두 다리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²⁰⁾

위의 시에 나타나는 두 눈과 눈꺼풀, 두 귀와, 두 팔, 그리고 두 다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이다. 이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신체 중에서 팔이나 다리

19) 위의 책, p.59.

20) 위의 책, p.61.

등 하나하나의 부분은 중심부와 차별화하여 인식되었다. 손과 다리는 인정받지 못해도 마땅히 일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것들의 역할을 당연시한다. 당연히 있어야 하고 누려야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윤석중은 사물 하나에서 신체에 이르기까지 존재 자체에 “그 얼마나 고마우냐”라고 인식함으로써 객체를 존중한다. 우리 몸을 사회와 연관 지어 생각하면 신체 각 부분인 눈과 눈꺼풀, 팔과 다리를 비롯한 목소리와 고개짓 등은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로 해석할 수 있고 화자는 그 각각의 요소들을 존중한다. 그것은 객체는 주체일 수 있고, 주체 또한 객체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동물이나 식물, 자연에서 그치지 않고 문명으로 이어진다. 시인의 세계인식방법은 인간이 이룩한 문명사회에서도 가치를 찾아낸다. 다만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낯은 가치로 인식될 뿐이다.

아궁이속 성난 불을/ 살살 달래 잠 재우는/
부지깽이 부지깽이/ 그 얼마나 고마우냐.//
아궁이 속 매운 연기/ 집 밖으로 내보내는/
굴뚝은 굴뚝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물독에 들어가서/ 겨울에도 물 나르는/
물바가지 물바가지/ 그 얼마나 고마우냐.²¹⁾

아침저녁 밥상을/ 깨끗하게 훑쳐주는/
물행주는 물행주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방과 마루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는/
물걸레는 물걸레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²²⁾

살에 박힌 가시를/ 안 아프게 빼주는/

21) 위의 책, p.35.

22) 위의 책, p.37.

죽집게는 죽집게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길 가는 눈 먼 사람/ 길을 살피 가게 하는/
 지팡이는 지팡이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²³⁾

위의 시에 나타나는 고마운 존재들은 부지깽이와 굴뚝과 물바가지 그리고 물행주와 물걸레, 죽집게와 지팡이이다. 이들은 문명의 산물로서 편리를 위해 태고의 인간들이 고안해낸 것들이다. 그러나 태고의 인간들은 그것들이 없으면 불편했던 것에 비해 현대인들은 그것들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의 필요성을 모르고 따라서 고마움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시골에서도 과학의 발달은 뿌리를 뺏어 부지깽이도 필요 없고 굴뚝 또한 필요 없기 때문이다. 물바가지와 물행주, 물걸레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의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기계가 대신한다. 그러나 편리함만 쫓다보니 편리함이 주는 해로움 또한 존재하여 인간을 물질 아래에 위치하게 했다.

또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유한하고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은 무한히 이어져 결국 에너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는 또 자연으로 돌아가 태고인처럼 자연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현대인은 태고인으로부터 이어져왔다. 즉 어제 없이 오늘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모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이 역사인 것이고 현대인이 태고인인 것이다. 시인의 이러한 발상에 따른 세계인식 방법은 사소한 것의 고마움을 형상화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사용가치 개념으로써 소중한 것들을 일깨워 주고 편리를 위해 지혜를 쓸 줄 알았던 태고의 인간에도 가치를 부여한다.

반갑구나 반가워/ 비 오는 날 새 우산./
 처음 받고 비 거리를/ 자랑삼아 걷는구나.//
 반갑구나 반가워/ 다시 찾은 현 신발./
 비 오는 날 꺼내 신고/ 빗길 걸어가는 구나.//²⁴⁾

23) 위의 책, p.39.

24) 윤석중, 『반갑구나 반가워』, 앞의 책, p.59.

반갑구나 반가워/ 전에 신던 운동화./
그걸 신고 뛰어서/ 일등 한 적 있었지.²⁵⁾

반갑구나 반가워/ 우리 학교 운동회날./
엄마가 따뜻한 밥/ 싸 가지고 오셨구나.//
반갑구나 반가워/ 장마 끝에 나온 해./
엄마가 옷을 빨아/ 별에 널고 계시구나.²⁶⁾

물론 위의 시에서 말하는 반가운 대상들, 비오는 날의 새우산과 흰 신발 그리고 운동회 날의 흰 운동화와 엄마가 싸주신 따뜻한 밥, 엄마가 빨아주신 옷 등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물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모든 것들을 기계에 의존하고 물질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은 위의 시에 나타나는 사물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시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편리해진 현실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리움이란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리상태로 현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⁷⁾

결국 한 세기 가까이 살고 삶을 마감하는 팔순의 윤석중이 고마움의 대상들과 반가움의 대상들을 나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물질에 지배받지 않는 인간상에 대한 염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질과 문명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살아온 생애를 통해 체득했기 때문일 것이다.

25) 위의 책, p.61.

26) 위의 책, p.73.

27) 가스통 바슐라르는 “삶의 경험에 저항하는 이 가치(유년시절을 향한 꿈의 가치)의 존재 이유는 유년시절이 우리 속에서는 삶의 원칙,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어진 삶의 원칙인 것이다.”라고 하였다.(가스통 바슐라르, 김현 역, 『몽상의 시학』, 弘盛社, 1984, p.141.) 또한 에리아데는 “인간이 시작으로 돌아가려는 욕망은 원초적인 상황을 회복하려는 것이며 또 다시 시작하려는 욕망, 지상의 낙원에 대한 향수”라고 한 바 있다. M. Eliade, the Ques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p.89. ; 이상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자아의식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p.28 재인용.

3. 나가며

위의 『그 얼마나 고마우냐』와 『반갑구나 반가워』의 시집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중의 생태학적 세계인식은 동물과 식물, 문명의 산물에서 인간과 자연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로 확산되면서 모든 것들에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는 그가 1978년 막사이사이 상을 수상할 때 발표했던 “동심에는 국경도 없고 동심이란 인간의 본심이고 양심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물이나 목석하고도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게 동심”²⁸⁾이라는 ‘동심론’과 맥을 잇는다. 그리하여 80여 년 문학인생에서 1300여 편²⁹⁾의 시는 동심이 중심축을 이룬다.

그가 팔순이 넘어 발간한 위의 두 권에 실린 시는 그의 문학의 결산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두 권의 시에 나타난 윤석중의 세계인식 방법은 그의 생애를 종합하는 세계인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얼마나 고마우냐』와 『반갑구나 반가워』에 나타난 150가지의 고마운 대상과, 100가지의 반가운 대상을 통하여 그는 이웃과 자연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고 나아가 자연을 구성하는 것들과 인간의 유기적, 윤리적 관계를 형상화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자아 중심적 사고를 반성하게 한다.

이러한 윤석중의 탈 자아중심적 인식, 생태학적 세계인식은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중심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며 서로 어울려 상생할 수 있게 한다.

28)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 1985, p.268.

29) 신현득, 「윤석중 연구」, 『윤석중 문학세계와 문화콘텐츠』, 서산예총, 2008, p.57.

참고문헌

- 김수복, 『상징의 숲』, 청동거울, 1999.
- 윤석중, 『그 얼마나 고마우냐』, 웅진출판, 1994.
- _____, 『반갑구나 반가워』, 웅진출판, 1995.
- _____, 에세이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출판부, 1985.
- 이상섭, 『문학연구의 방법』, 탐구당, 1997.
- 신현득, 「윤석중 연구」, 『윤석중 문학세계와 문화콘텐츠』, 서산예총, 2008.
- 이상호,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자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 가와하라 카즈에, 양미화 역, 『어린이관의 근대』, 소명출판, 2007.

Abstract

Ecological Recognition of the World Reflected in Seok-joong Yoon's Literature

—Focusing on How Thankful It Is, So Nice to Meet You

Roh, Kyeong-soo

Seok-joong Yoon called as a great master of children's songs created about 1300 children's song poems for 80 years. The central point of his extensive literature is a child's mind. His mind of a chil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has no border and can talk with animals and plants, trees and stones, and all nature in the world. In his collections of poems *How Thankful It Is* and *So Nice To Meet You* that were published when Yoon was over 80, he said "hello" to nature such as animals, stones and plants. He recognized human being and nature in the same position like a child in these collections of poems, and his recognition was de-egocentric by giving the equal personality to objects or each part of body that we usually think just as useful medium, through having a positive conversation such as "How thankful it is" or "So nice to meet you", and shaping ethical relation to them.

Yoon's recognizing style reveals that human is not the only being that reigns over nature, ruins the environment and treats the life lightly by objectifying nature and the matters, based on the man-centered thoughts, but as a part of the nature, we should live together with them. His ecological recognition that is reflected in two collections of poems published when he was over 80, can be interpreted as his comprehensive recognition of literature, from the point of the evening of his life. In this material dominated, exceedingly competitive society, the ecological recognition of the

world reflected in the collections of poems How Thankful It Is and So Nice To Meet You shows a way to harmonize human being with nature by our getting out of egocentrism and materialism. Also, it's very meaningful to prevent human being from oppression by materials and let them think worthy themselves.

주제어 : 자연(Nature), 물질(The matters), 탈자아중심(de Egocentrism), 탈물질중심(de Materialism), 동심(A child's mind)